

ICDC Weekly

인천광역시 감염병 주간소식지



홈페이지 바로가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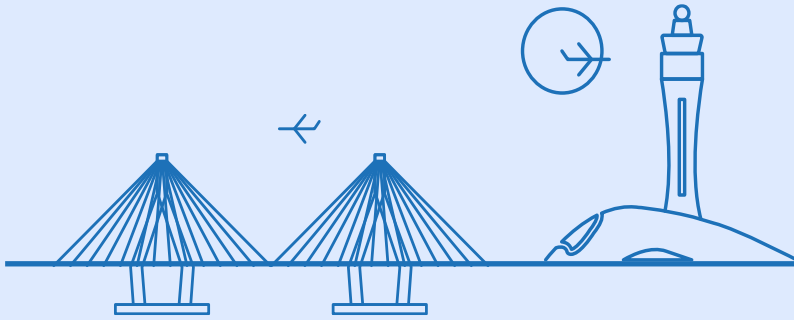
발행일 2025. 7. 16.(수) 통권 제300호

발행처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

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2층

연락처 032-440-8031

- 01 주간 감염병 소식
- 02 인천광역시 감염병 전수감시 신고 현황
- 03 감염병 표본감시 신고 현황
- 04 인천광역시 말라리아 발생 현황
- 05 국내외 감염병 발생동향
- 06 홍보자료



0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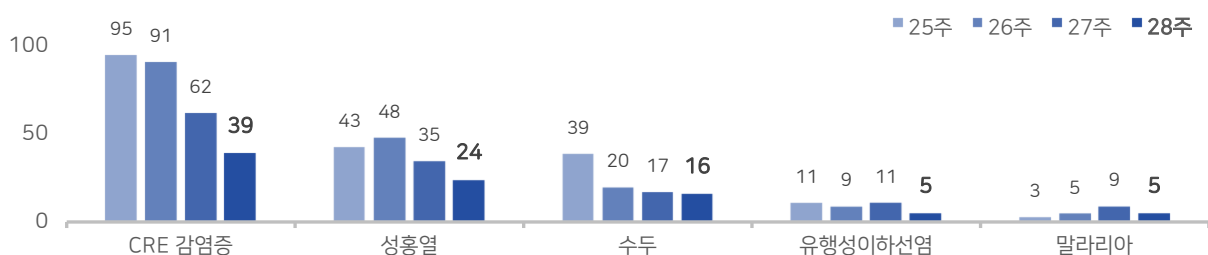
주간 감염병 소식

전국 및 인천광역시 감염병 누적 신고 현황



- (전국) 전국 감염병은 CRE 감염증 24,589건, 수두 17,556건, 성홍열 6,770건, 백일해 5,065건, 유행성이하선염 3,930건 순으로 신고됨
- (인천) 인천광역시 감염병은 CRE 감염증 1,938건, 성홍열 752건, 수두 725건, C형간염 256건, 백일해 249건 순으로 신고됨
- 신고현황은 '25. 7. 16.(수)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 감염병통계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'25년 누적기간(1주차~28주차)에 신고된 다빈도 5개 감염병에 대한 누적신고 건수임

인천광역시 다빈도 감염병 주요 신고 현황



- 28주차 인천광역시 감염병은 총 161건 신고되었으며, 최근 3주(2025년 25주~2025년 28주) 평균(188건) 대비 27건 감소함
- 신고수 상위 5개 감염병은 CRE 감염증 39건, 성홍열 24건, 수두 16건, 유행성이하선염 5건, 말라리아 5건 순서임
- 소식지 내 인천광역시 감염병 전수감시 신고 현황(2페이지)을 참조

인천광역시 감염병 전수감시 신고 현황

구 분		인천								전국			
		2025				동기간대비 (1-28주)				동기간대비 (1-28주)			
		28주	27주	26주	25주	2025	2024	증감	5년 평균	2025	2024	증감	5년 평균
1급	보툴리눔독소증												0
	수두	16	17	20	39	725	674	▲ 51	627	17,556	17,763	▼ 207	14,066
	홍역					2	2	- 0	1	65	47	▲ 18	23
	장티푸스					1	2	▼ 1	1	18	21	▼ 3	21
	파라티푸스						1	▼ 1	1	5	7	▼ 2	9
	세균성이질					1	2	▼ 1	1	32	21	▲ 11	21
	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		1		1	11	4	▲ 7	4	164	137	▲ 27	115
	A형간염			3		38	42	▼ 4	102	621	726	▼ 105	1,398
	백일해		2	3	3	249	1,447	▼ 1,198	339	5,065	10,341	▼ 5,276	3,090
2급	유행성이하선염	5	11	9	11	220	198	▲ 22	219	3,930	3,924	▲ 6	4,167
	수막구균 감염증									7	12	▼ 5	5
	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									1	1	- 0	1
	페렴구균 감염증	2			2	19	22	▼ 3	19	281	279	▲ 2	226
	한센병									1	2	▼ 1	2
	성홍열	24	35	48	43	752	283	▲ 469	216	6,770	3,144	▲ 3,626	2,174
	VRSA 감염증									1	1	- 0	1
	CRE 감염증	39	62	91	95	1,938	1,912	▲ 26	1,514	24,589	22,650	▲ 1,939	18,347
	E형간염		1	1		15	18	▼ 3	12	424	366	▲ 58	314
	파상풍			1		2	2	- 0	1	10	13	▼ 3	12
	B형간염				1	10	12	▼ 2	11	126	134	▼ 8	171
	일본뇌염										1	▼ 1	0
	C형간염	3	9	12	7	256	302	▼ 46	341	3,042	3,674	▼ 632	4,307
	말라리아	5	9	5	3	47	58	▼ 11	39	252	315	▼ 63	249
	레지오넬라증					7	17	▼ 10	13	248	190	▲ 58	200
	비브리오패혈증								0	3	8	▼ 5	4
	발진열					1	5	▼ 4	1	7	14	▼ 7	5
	쯔쯔가무시증					1	3	▼ 2	4	163	746	▼ 583	513
	렙토스피라증								1	16	20	▼ 4	26
	브루셀라증									4	2	▲ 2	2
3급	신증후군출혈열					3	2	▲ 1	2	92	130	▼ 38	115
	CJD/vCJD					3	4	▼ 1	2	28	31	▼ 3	36
	덴기열		1			5	6	▼ 1	4	44	99	▼ 55	47
	큐열			1		1	1	- 0	1	29	33	▼ 4	26
	라임병								1	11	17	▼ 6	10
	유비저									3	1	▲ 2	2
	치쿤구니야열									1	2	▼ 1	3
	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									88	64	▲ 24	66
	지카바이러스감염증									2		▲ 2	1
	엡폭스									3	7	▼ 4	5
	매독		4	4	3	85	81	▲ 4	83	1,168	1,509	▼ 341	1,339
	매독(선천성)	1				2		▲ 2	1	10	5	▲ 5	8

- 28주차(2025. 7. 6. ~ 2025. 7. 12.) 전수감시 신고 현황은 2025. 7. 16(수)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 감염병통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, 2025년 통계자료는 변동가능한 잠정통계임

- 5년 평균은 최근 5년(2021-2025)의 1주부터 해당 주까지 누적 신고수의 평균이며 엡폭스, 매독, 매독(선천성)은 최근 2년(2024-2025)의 1주부터 해당 주까지 누적 신고수의 평균임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여 국가 감염병 감시체계를 통해 보고된 감염병 환자 발생 신고를 기초로 집계되며, 감염병별 신고범위에 따라 감염병 환자, 감염병 의사환자, 병원체보유자가 포함될 수 있음

- 지역별 통계는 환자주소지 기준으로 집계함 (단, VRSA 감염증과 CRE 감염증은 신고한 의료기관 주소지 기준임)

- 최근 5년(2021-2025)동안 발생이 없었던 에볼라바이러스병, 마버그열, 라싸열, 크리미안콩고출혈열, 남아메리카출혈열, 리프트밸리열, 두창, 페스트, 탄저, 아토병,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, 중동호흡기증후군,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, 신종인플루엔자, 디프테리아, 콜레라, 풍진, 폴리오, 발진티푸스, 공수병, 황열, 웨스트나일열, 진드기매개뇌염은 제외함

수족구병 표본감시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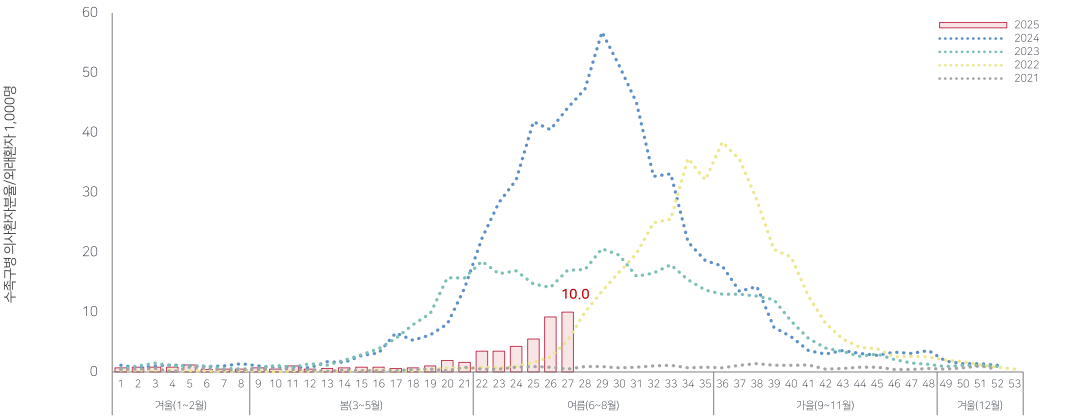
주별 연령별 수족구병 의사환자 임상감시 현황

- (전국) 27주차 수족구병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,000명당 10.0명으로 전주(9.2명) 대비 증가

단위: 수족구병 의사환자 수/진료환자 1,000명

구분	2025년							
	20주	21주	22주	23주	24주	25주	26주	27주
전체	1.9	1.6	3.5	3.5	4.3	5.5	9.2	10.0
전국 0-6세	2.4	2.3	4.1	4.1	6.1	7.7	12.9	14.1
7-18세	1.3	0.4	2.4	2.2	1.3	1.9	2.6	2.4

2021-2025년 주별 수족구병 의사환자 분율(전국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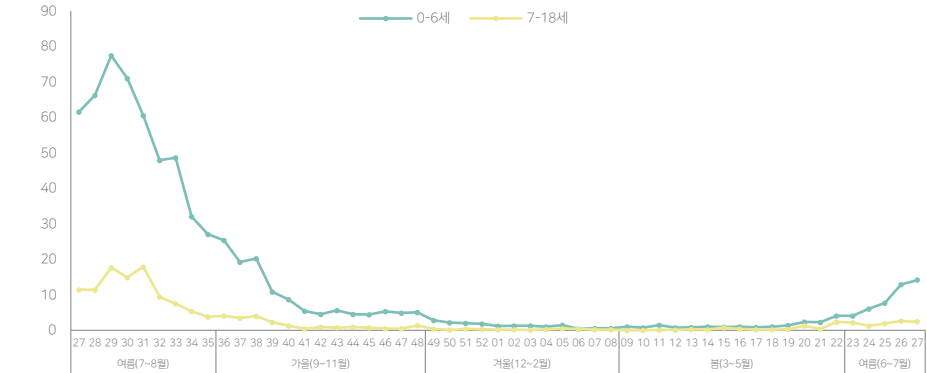


1) 수족구병 의사환자 분율(전분율) =
(수족구병 의사환자 수/총 진료환자 수) x 1,000

2025년 27주차 연령별 수족구병 의사환자 분율(전국)



최근 1년 연령별 수족구병 의사환자 분율(전국)



- 27주차(2025.6.29~2025.7.5.) 표본감시 현황은 2025.7.14.(월)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 감염병통계 및 2025년도 27주차 표본감시 주간소식지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

- 수족구병 표본감시 현황은 표본감시 참여기관의 수족구병 의사환자* 감시 자료를 보고 시점 기준으로 분석한 잠정통계로 변동 가능함

* 의사환자: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

- 수행기관: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 감염병관리과 / 전국 110개 수족구병 표본감시사업 참여의료기관(의원)

인천광역시 말라리아 발생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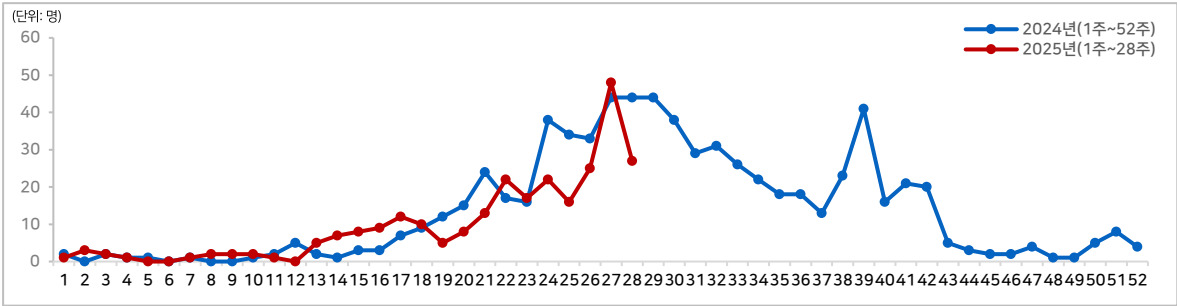
※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에 보고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음

말라리아 환자 발생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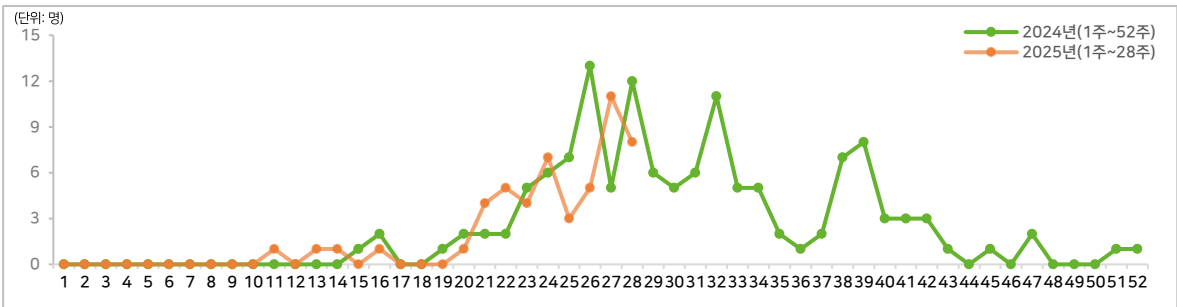
- (전국) 2025년(1주~28주) 총 269명(28주 신규 27명), 전년 317명 대비 48명(15.1%) 감소
 - (인천) 2025년(1주~28주) 총 52명(28주 신규 8명), 전년 48명 대비 6명(10.4%) 감소
- (단위: 명)

구분		21주	22주	23주	24주	25주	26주	27주	28주
전국	누계	92	114	131	153	169	194	242	269
	주간 신규발생	13	22	17	22	16	25	48	27
인천	누계	9	14	18	25	28	33	44	52
	주간 신규발생	4	5	4	7	3	5	11	8

(전국) 전년 대비 주별 발생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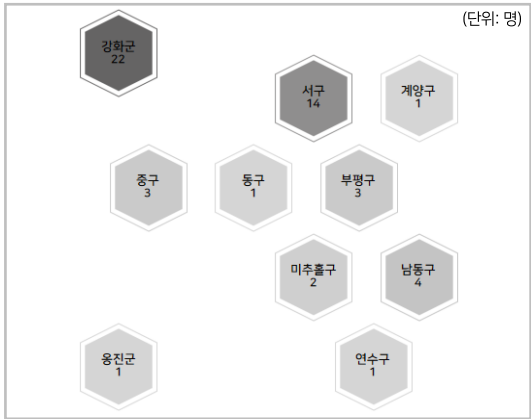
(인천) 전년 대비 주별 발생 추이



지역별 발생 현황(주소지 기준)

- (신고수) 2025년(1주~28주) 강화군 22명(42.3%), 서구 14명(26.9%), 남동구 4명(7.7%), 중구·부평구 각 3명(5.8%), 미추홀구 2명(3.8%), 옹진군·동구·연수구·계양구 각 1명(2.4%) 순으로 발생
- (발생률) 2025년(1주~28주) 강화군 31.79명, 옹진군 4.95명, 서구 2.23명, 중구 1.84명, 동구 1.70명 순

지역별 발생 분포(신고수)



지역별 발생 분포(발생률)



국외 호주 박쥐 리사바이러스 인체감염

- (호주)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'호주 박쥐 리사바이러스'(ABLV)로 인한 첫 감염 사례(사망) 발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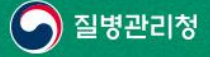
-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스(NSW)주에서 '호주 박쥐 리사바이러스'(ABLV, Australian bat lyssavirus) 첫 감염 사례(사망)가 보고됨
 - 환자(50대, 남성)는 몇 개월 전 박쥐에게 물린 후 상처 치료를 받았으며, 중증 상태에 있다가 사망함
- 해당 사례는 호주에서 발생한 네 번째* ABLV 감염 사례이자, NSW주에서 발생한 첫 ABLV 감염 사례로 보고됨
 - 보건당국은 증상에 영향을 준 다른 노출 요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언급
- * 1996년 1명, 1998년 1명, 2013년 1명, 2025년 1명
- 호주 박쥐 리사바이러스(ABLV)는 1996년 첫 발견 이후 지금까지 호주 내에서 4명의 ABLV 감염사례가 모두 사망하여 치명률(100%)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됨
- 호주 보건당국은 ABLV 인체 감염 사례는 드물지만 효과적인 치료법이 없다고 언급하였으며, 박쥐가 사람을 물거나 핏자국을 냈을 때 침에 있는 바이러스가 감염될 수 있으므로 박쥐와 접촉하지 말고 만약 노출된 경우 즉시 치료 받을 것을 권고함
 - 해당 바이러스에 노출된 즉시 비누와 물로 15분 동안 상처를 깨끗이 씻고,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소독제(베타딘 등)를 바르고 건조시킨 후 공수병 면역글로불린 및 공수병 백신접종을 권고함

국외 원숭이열말라리아

- (대만) 필리핀 팔라완을 여행한 30대 외국인 남성이 원숭이열말라리아에 진단

- 대만에서 '05년 이후 약 20년 만에 두 번째 원숭이열말라리아 해외 유입 환자 발생이 보고됨
 - 환자는 30대 외국인 남성으로 6월 초 필리핀 팔라완을 여행했으며, 말라리아 예방약을 복용하지 않았고 팔라완을 관광하는 동안 모기에 물렸다고 말함
 - 대만 입국하기 전 두통, 발열, 근육통, 진한 소변, 졸음 증상이 시작됐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병원 진료하여 원숭이열말라리아(*Plasmodium knowlesi*) 감염이 확인됨
- 대만에서 보고된 원숭이열말라리아 환자 2명(해외 유입) 모두 필리핀 팔라완에서 유입되었음
 - 필리핀에서 원숭이열말라리아 감염 사례는 주로 세부와 팔라완에서 보고되며, 팔라완에서 첫 확진 사례는 '05년에 5명이 발생하였고 이후 산발적으로 보고됨
- 대만 질병관리본부는 필리핀 팔라완을 여행하는 사람에게 긴 옷 착용, 모기 기피제 사용 등 모기 물림 예방 조치를 하고, 말라리아 위험지역이나 정글 지역에 머물 계획이 있는 사람은 여행 최소 한 달 전에 의사와 상담하고 말라리아 예방약 복용을 권고함
 - 귀국 후 의심 증상 발생 시 가능한 빨리 진료를 받고 여행력 및 복용한 예방약 등의 정보를 의사에게 제공할 것을 안내함
- 국내에서 말라리아는 국내 발생과 해외 유입 모두 보고되고, 국내 발생은 경기, 인천 서울, 강원에서 주로 발생함
 - 국내 발생은 2019년 이후 환자 수가 감소하였으나 코로나19 이후 다시 증가 추세로 전환되었고, 해외 유입 사례는 2024년 54명으로 전년 대비 27% 감소하였으며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지역 방문으로 감염된 사람이 대부분을 차지함
 - 질병관리청은 말라리아 위험지역에서는 매개모기 방제를 강화하고, 모기 물림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권고함

2025.6.11.



모기 퇴치 국민 행동수칙 7

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**7가지 행동수칙**을 꼭 지켜주세요!



열록날개모기류
· 말라리아



집모기류
· 일본뇌염, 웨스트나일열



숲모기류
· 지카바이러스, 뎅기열, 황열, 치쿤구냐열



1

자기 전 집안 점검하기



- 살충제, 모기향 등 사용 후 반드시 환기
- 모기장 사용 및 구멍 난 방충망 확인

2

고인 물 제거하기



3

야외활동 후 샤워하기



4

향수·화장품 자제하기



5

기피제 올바르게 사용하기



- 식약처 등록 제품 사용
- 용법, 용량, 주의사항 확인 후 사용

6

밝은색 긴 옷 착용하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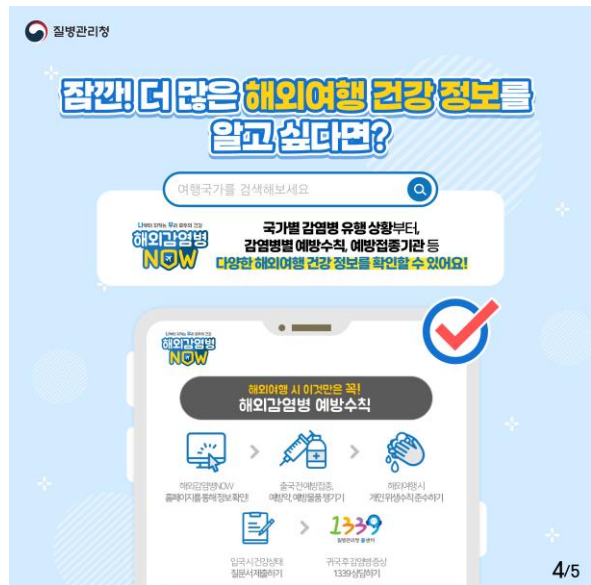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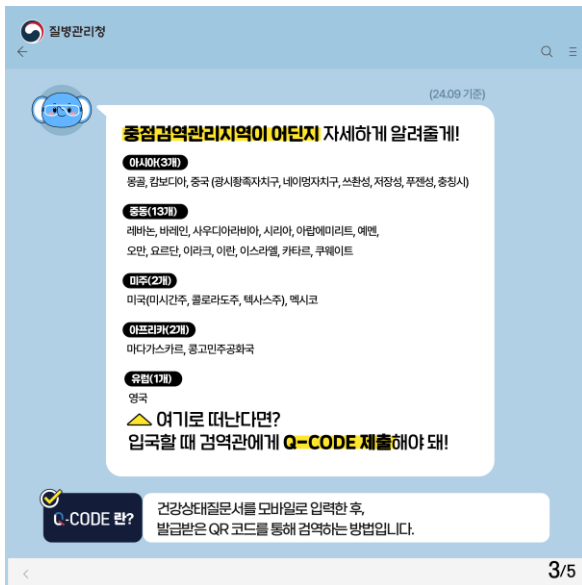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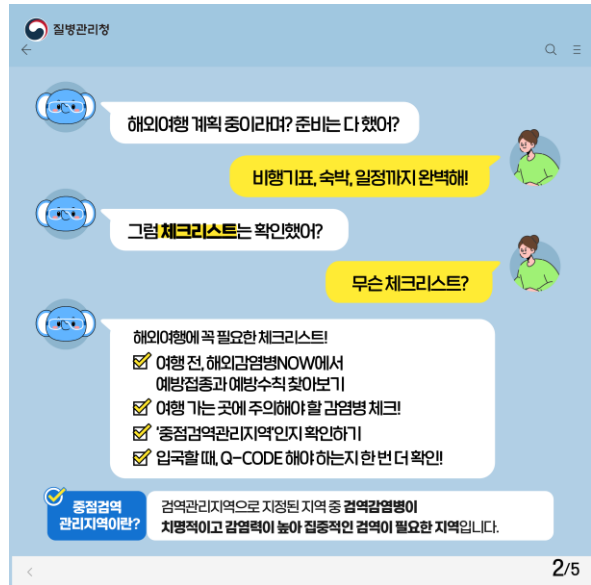


7

과도한 음주 자제하기



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입니다.



ICDC Weekly

인천광역시 감염병 주간소식지

